시, 수산물 안전성 확보 '총력'

'방사능 안전 대책 TF팀' 구성·운영… 간이 방사능 검사 등 수산물 안전대책 수립·시행

전주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원산지 점검 및 간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전주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만큼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성을 지키고 수산물의 소비 판매 위축을 막기 위해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원산지 점검 및 간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9월부터 부시장이 총괄하고 농축산정책과와 농식품산업과, 환경위생과, 완산·덕진구청 청소위생과 등 5개 부서 24명이 참여하는 '방사능 안전 대책 TF팀'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휴대용 방사능 검사 장비 5대를 구입해 일본산 의존도가 높은 활참돔과 활가리비, 황우렁쉥이 등의 수산물을 취급하는 주요 취급업소 및 수산물 도매시장 등을 수시 방문해 원산지 점검과 방사능 간이검사를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식품위생부서를 중심으로 '다소비 수산물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 소비가 많은 수산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해당 품목을 음식점 등에서 시료를 수거한 후 정밀검사 기관에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유해물질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시민들의 수산물 먹거리 불안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원전 오염수 방류 시기와 추석 명절 소비 기간이 맞물리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된 만큼 오는 9월 22일까지 마트 등 제수용 수산물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종성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해 수산물 소비 감소 등 지역 수산인들과 수산물을 취급하는 소상공인들의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향후 양식장과 위판장, 시장 등에서 생산·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기업반 취업지원사업' 채용박람회 성료

전주비전대서, 학생에게 기업 채용정보·면접 기회

10개 참여기업에는 인재 채용과 기업 홍보 기회 제공

전주시가 지역 대학, 13개 자동차·ICT 관련 지역기업과 손잡고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시와 전주비전대(총장 우병훈) 취창업지원처는 30일 전주비전대학교 행복기숙사 2층 컨벤션홀에서 2023년 '전주기업반 취업지원 사업' 참여기업 채용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날 채용박람회는 시가 지역대학, 자동차·ICT 관련 기업들과 함께 추진 중인 '전주기업반 취업지원 사업'의 연계 행사로, 학생 취업역량 강화와 취업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번 박람회에는 자동차·ICT 참여기업 10개사의 채용부스가 마련돼 학생들에게 기업 현황과 직무, 복지혜택, 채용계획 등을 홍보하고, 직원 채용을 위한 현장 모의 면접 등을 진행했다.

이에 앞서, 시와 전주비전대학교, 자동차생산·ICT 관련 13개 기업은 지난 7월 7일 기업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주기업반 취업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협약 기업에 취업하는 학생에게는 5년 동안 최대 4200만원을 지원해 장기근속과 지역 정착을 돕는 것이 핵심이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복지재단, 집중호우 피해지원

총 3600만원 모금… 전액 취약계층 200여 가정 위해 사용키로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랑'(이사장 윤방섭)은 지난 여름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주시민을 위해 '2023 집중호우 피해지원사업'을 전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주시복지재단은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16일까지 진행한 집중호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모금을 통해 총 3800만원을 모금했다.

재단은 기부된 전액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200여 가정에 생계비와 필요 물품(제습기, 냉장고, 옷장 등), 구호 물품 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윤방섭 전주시복지재단 이사장은 "특별모금으로 힘을 모아준 30여 명의 기부자님들께 감사드린다"면서 "기부해주신 성금은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지중해로 떠나는 철학기행' 5일 시작

전주시 평생학습관 유쾌한 인문학 4탄 운영

전주시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인문학을 접할 수 있도록 시민인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주시 평생학습관은 오는 9월 5일부터 10월 17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유쾌한 인문학 4탄인 '지중해 철학 기행'을 운영한다.

서양 철학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유쾌한 인문학에서는 이강서 전남대 철학과 교수가 △서양 문화의 시원 지중해 △두 기둥-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아테나 여신의 도시, 아테네 등 3차례 강연에 나선다.

이어 양진호 인문학교육연구소 소장이 △천년 로마의 시작 △섬들의 풍경-크레타, 시칠리아, 몰타 등에 대한 강의를 펼칠 예정이다.

이번 유쾌한 인문학은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3만 원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전주시평생학습관 누리집(e.jeonju.go.kr) 또는 전화(063-281-5367)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자녀를 동반한 인문학 학습자들을 위해 유쾌한 인문학과 같은 시간대에 '건강한 몸과 마음'을 주제로 한 어린이 인문학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어린이 인문학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5000원이다. /김옥기 기자

코로나19, 31일부터 4급 감염병으로 전환

전주시, 선별진료소 지속 운영·코로나19 상황실 유지키로

중증환자 입원 치료비 일부 지원·생활지원·유급 휴가비 종료

코로나19 감염병이 2급에서 4급으로 전환되지만 선별진료소와 코로나19 상황실은 지속 운영된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이 2급에서 4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시민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특히, 시는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주시 선별진료소를 기존대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덕진보건소(우아1길 20) 1층에서 운영하고, 변경된 방역수칙 안내를 위해 코로나19 상황실(063-281-6341~2)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코로나19가 4급 전염병으로 전환되면 그간 지원되던 생활지원, 유급 휴가비 지원이 종료되고, 상대적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수반되는 중증환자의 경우 입원치료비가 일부 지원된다. 단, 마스크는 현행처럼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의 경우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또한, 그간 운영돼온 호흡기환자진료센터(원스톱 진료기관 포함) 지정이 해제되고, 모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외래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체계로 전환된다. 단, 선별진료소 무료 PCR 검사와 먹는 치료제 처방 등의 RAT·PCR 검사비 지원은 일부 유지된다.

선별진료소 PCR 검사 무료대상자는 △만60세 이상 고령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와 해당 환자의 상주보호자 1인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등이다.

4급 전염병 전환에 따라 향후 코로나19에 확진되는 시민들은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증상발현 시 의료기관 방문해 진료를 받고, 필요시에는 치료제를 처방받아 복용하면 된다. 고위험군 및 60세 이상 환자의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등) 처방·조제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옥기 기자

시, '농산물 종합가공 센터' 예산 확보

'2024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사업' 공모 최종 선정

전주시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2024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사업' 공모에 신규지역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공모사업은 농업인 공동이용 공동가공시설인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설치·운영해 농산물 가공과 창업, 보육 등을 통한 농외소득을 향상시키고자 진행됐다.

전주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5월 농진청 공모사업에 참여했으며, 전국 7개소 시군 중 종합평가 1위로 선정됐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시는 국비 포함 19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덕진구 도도동 부지 내에 499㎡ 규모로 습식·건식라인 및 젤라또라인 등의 가공시설을 갖춘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앞으로 시는 농산물가공 창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활용해 농산물의 가공기술 교육과 상품화 등을 지원한다. 또 시제품 개발부터 생산, 유통,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돕는다. /김옥기 기자